

전남 서남권 조선업계, 디지털·자동화 전환 속도

자동 용접 로봇 활용 철의장 아이템 생산 과정 시연회 개최
현대삼호 “도·유관기관 협력 디지털 밸리 조성 앞장서겠다”

지역 조선사와 협력회사가 중심이 돼 조선 철의장 제작사 디지털밸리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혁신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해 시선을 끌고 있다.

협의체는 2일 ㈜선우에서 HD현대삼호와 대한조선, 지역 주요 철의장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철의장 제작사 디지털밸리 조성’을 위한 자동화 수범 사례 현장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Runner Bar & Hanger (Cable Tray)’ 가변형 타입에 대한 자동 용접 로봇을 활용한 철의장 아이템 생산과정을 시연했다.

HD현대삼호가 도면과 자동화를 위한 수치정보를 제공하고, ㈜선우는 로봇과의 데이터 연결을 통해 용접 로봇이 동작하는 전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선우 정명훈 대표는 “기존의 수작업 방식은 생산성이 낮고, 품질 편차도 컸으나 자동 용접 로봇 도입 후 생산성이 두 배가 향상됐으며 생산 속도 증가와 품질 균일성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선업계는 중국 조선업의 자동화 기술 발전, 국내 인력난 심화 등으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불산단 내 철의장 제작사들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생산공정 혁신과 자동화 도입을 통해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협력사들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직접 체험하고, 자동화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지역 최대 조선사인 HD현대삼호의 심학무 전무는 “지역 협력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위해 전남도와 대한조선, 전남테크노파크, 대불산학융합원 등과 함께 정책적, 기술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불산단 내 철의장 업체를 시작으로 Pipe 제작 업체까지 확대해, 대불산단 제작사 디지털 밸리조성에 HD현대삼호가 앞장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영양=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HD현대삼호와 대한조선, 대불산단 내 협력회사들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2일 ㈜선우 사업장에서 자동화 모범사례 시연회를 가졌다. <HD현대삼호 제공>

신안군 ‘농촌특화지구 사업’ 선정…5년 100억 투입

경관농업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추진

신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특화지구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100억원이 투입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주거, 산업, 경관 등 기능을 하나로 집적화해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 보전하는 내용이다.

신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 100억원을 확보해 경관농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마을보호지구 3개 지구 유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옐로우 리본’ (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팔금면 일대에 72ha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해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 휴게 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지구’는 유채와 바나나 등의 특화 작물들을 6차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시설, 판매장, 농촌교류체험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원산마을을 지정하고 빈집, 유해시설 등의 정비와 이설로 농촌다움을 보존하고 청년들의 귀농·귀촌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농촌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표적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



‘옐로우 리본’ (Re-Born)을 주제로 매년 유채꽃 축제가 펼쳐지는 신안군 팔금면 일대에 72ha 유채밭을 ‘경관농업지구’로 지정된다. <신안군 제공>

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입안 과정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

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우수상’

22개 시·군 중 체납액 징수율 1위
체납처분 유예 통한 회생 지원도

진도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남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체납액 징수율, 징수 규모, 공매 처분율

등 5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진도군은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지 ▲압류와 공매 처분 확대 강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1위를 달성하는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방지 차량을 즉시 공매해 체납액의 증가를 방지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

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어려운 징수 여건 속에서도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일념으로 직원 모두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계기로 더욱 체계적인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제6기 흑산 홍어 썰기 학교 24명 입학

6개월 이론·실습…성수기 일손 부족 해결 등 기대

신안군은 지난 1일 흑산도 복지회관에서 제6기 흑산 홍어 썰기 학교 입학식을 개최했다. <사진> 신안군은 지난 2일 교육생을 모집해 24명의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4월부터 9월까지 홍어 관련 이론과 홍어 숙성, 손질, 포장방법 등 실습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올해로 6년째를 맞은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총 8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65명은 ‘흑산 홍어 썰기 기술자’ 초급 민간자격증을 취득했다.

지난해에는 초급 민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중급 민간자격증 시험을 실시해 4명이 중급 자격증

을 취득하기도 했다.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군 관광협의회 흑산 지회 주관으로 흑산도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명절, 성수기 등 홍어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마다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수산물 판매촉진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서진 흑산 홍어 썰기 학교 학교장은 “흑산 홍어 산업을 견인할 입학생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홍어 썰기 기술을 배워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홍어 산업을 주도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광 쉽 투어 버스’ 확대 군, 19일부터 물명쉽터·향교 추가

영광군이 역사·문화·자연 명소와 함께하는 힐링 여행으로 ‘영광 쉽 투어’를 운영한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쉽 투어는 올해부터 기존 인기 코스에 테마식물원, 물명쉽터, 향교를 추가해 3개 코스로 확대해 관광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영광 쉽 투어는 오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바다랑(A)·숲이랑(B)·문화랑(C)을 순차적으로 운행하며 광주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9시 30분, 광주 송정역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10시에 출발한다.

세부적으로 바다랑(A)은 테마식물원, 숲쟁이꽃동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백수해안도로를 숲이랑(B)은 불갑사, 테마공원, 물명쉽터, 숲쟁이꽃동산,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물무산행복숲 황토길을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된 문화랑(C)은 숲쟁이공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매간당 고택, 물무산행복숲과 향교를 둘러보는 영광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나라고속관광에 전화 예약을 하거나 영광군 누리집(문화관광/영광 쉽터,투어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예약을 할 수 있고, 1인이 대표로 여러 명 예약도 가능하다. 예약은 투어 전날 오후 5시에 마감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무안군, 저출산 해결 대책 보니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첫 지원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무안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영구피임 시술을 받았으나 현재 출산을 원하게 된 군민에게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무안에 주소를 둔 남성 만 55세 이하, 여성 만 49세 이하 군민이다.

대상자는 전남도 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시술하면, 생애 1회에 한해 본인 부담금 정관은 최대 50만 원, 난관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받으면 된다.

김성철 무안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산을 희망하는 군민들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안심우편 배달하며 독거노인 살피요”

해남군-우체국 협약…취약계층에 생필품 월 1~2회 배달

“우편 배달하며 안부도 살피요.”

해남군이 해남우체국과 ‘안심살핌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심우편(택배)을 발송하고, 집배원이 직접 대면 전달 후 대상 가정의 안부까지 살피게 된다.

국비와 군비, 우체국공익재단 사업비 등 총 6000만원을 투입해 생필품과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안심우편을 매달 1~2회 배달할 예정이다.

배달 때 집배원은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우편을 전달하는 한편 생활환경 등 안부 살피도 병행하게 된다.

군은 반송 자료와 집배원의 대상자 점검 결과

를 활용해 위기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28일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 김숙영 해남우체국장 등이 참석해 우편배달을 통한 취약계층 안부살피기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숙영 해남우체국장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중한 사업으로, 해남우체국과 협력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손명도 해남 부군수는 “안심우편 서비스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원

0~5세 월 10만원

목포시가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0~5세 아동으로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목포 소재 어린이집에 다니며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전남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 또는 아동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중단되며, 취학유예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까지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를 발급 받아 아동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또는 목포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 입소 아동도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료 지원을 통해 외국인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덜고, 외국인 아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